

1923년 3월 20일, 소파 방정환의 노력으로 세상에 빛을 본 최초의 어린이 잡지 <어린이> 이후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며,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외쳤던 그의 말이 약효가 있었는지, 요즘엔 어린이와 관련된 것 중 무엇 하나 흥하지 않은 것을 좀체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돼 버렸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출판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책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이후 전반적인 출판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책 시장 규모는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했고, 2001년에는 1992년 1,358억 원에서 2,749억 원으로 두 배가량 커져 정점을 맞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도서의 총 발행종수는 5,219종, 시장규모는 무려 2,931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전년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발행부수가 줄긴 했지만, 부동의 1위인 학습참고서 부문에 이어 2위 자리를 지킨 것은 여전했다.

최근에도 어린이책 시장이 꾸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질적인 성장기를 지나 양적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17일 막을 내린 제41회 이탈리아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웅진닷컴'과 '초방'이 각각 픽션과 논픽션 부문에서 '라가치 상'을 수상한 것은 국내 아동출판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쾌거로 기록되고 있다. 실제로 요즘 서점가에선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한 느낌의 외국서적보다는 순수 국내 창작물이 더욱 잘 팔리고 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최영희(36) 씨는 아이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내용들이 담긴 그림동화를 주로 골라주는데, 예전의 단순한 삽화 수준이 아니라, 회화적인 느낌의 작품들이 요즘 들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서울 정릉동에 사는 김혜영(35) 씨는 요즘 나온 창작동화책 중 우리 고유의 전통

적인 소재와 느낌의 작품들을 주로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근래 아동도서에 부는 새 바람은 경제(경영) 서적의 유행이다. 성인출판 시장을 거세게 훑고 있는 자기계발 바람이 아동서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서울 교보문고 4월 아동서적 베스트셀러 1위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성공하는 정리형 아이》(크나)가 차지했고, 8위에도 《상상력 100원으로 우리아이 부자 만들기》(세발자전거)가 올라 있다.

어린이책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0~3세의 유아대상 서적이다. 1970년대 이후 태어난 고학력 세대를 중심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아지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서적의 판매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1990년대부터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명망 있는 성인단행본 출판사들이 아동서적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 수준도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유아용 서적은 교육프로그램 교재에서 놀이용 서적, 그림동화, 교육용 책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어린이책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만화 단행본의 성장이다. 서점용 만화의 붐을 일으키며 지난 2000년 첫 출시된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가나출판사)는 지금까지 어렵잡아도 1,000만 권 이상 팔리는 대박을 터뜨렸다. 이른바 학습만화로 불리는 이런 유형의 책들은 줄잡아 한 해 2,000억 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책읽는 시간은커녕 학습지 볼 시간도 부족하다는 요즘 아이들에게 만화는 쉽고 빠르게, 덤으로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이러한 학습만화의 판매를 주도하는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문제는 질적인 성장. 전문가들은 진정한 학습만화보

서점에서 만난 독자들

시장규모 3,000억 원, 독자들이 선택한

어린이책을 엿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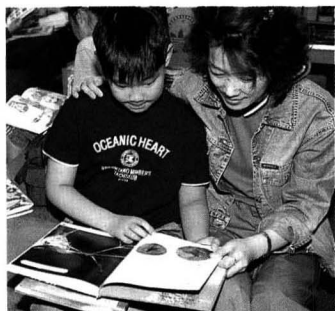


다는 무늬만 학습인 책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전문적인 작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작품성보다는 호기심 위주의 책들이 많기 때문이다. 교사나 출판계 등의 전문가들은 만화 자체를 무시할 순 없으나, 우수한 작품을 고르는 데는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책을 사주기 전에 몇 페이지라도 읽어보면 양질의 책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어린이책 발행부수는 20.9퍼센트나 감소했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꾸준한 성장 끝에 처음 있는 감소세는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도서전 입상 등의 질적인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자연스레 수준 이하의 작품들이 도태되기 시작한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mini interview ·

“손에 잡을 수 있는 보드북을 좋아해요”



이현진(33·경기도 용인시 수지)

올해 7개월 된 딸을 둔 엄마 이현진 씨가 요즘 가장 신경 쓰는 말 중 하나는 ‘0~3세 사이의 시기가 아이의 인성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말

이다. 그래서인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서점을 찾게 된다는 그녀. 아직은 아이가 어려 특별히 선호하는 책은 없지만, 일단 아이가 반응을 보이는 책을 사서 읽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놀이, 교육용 서적, 동화책 등 가리지 않고 사서 들려주는 편이에요. 아직은 아이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알 수 없어서요.” 딸아이가 요즘 들어 부쩍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보드북. 다

양하고 독창적인 형태의 제본으로 내용은 물론 교육용 장난감의 효과도 볼 수 있는 책들이다. 양질의 책을 골라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도 매한가지인데, 주로 인터넷이나 신문의 서평을 이용해 정보를 얻는다. 근래에는 믿을 수 있는 유아교육 전문 출판사의 책들을 선호하는 편이다.

mini interview ·

“기슴 훈훈한 창작동화에 손이 가요”

금정선(42·중국 천진)



주중 한국 대사관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 중국의 천진에서 생활하고 있는 금정선 씨는 부활절 휴가를 맞아 한국을 찾았다. 그녀가 방학과 휴가 때마다 아

이와 함께 찾는 곳은 역시 서점이다. 올해 천진국제학교 5학년인 아들의 나이는 열두 살. 내용이 조악하고 지질도 떨어지는 중국의 서적 성향 때문에, 한국의 서점은 잊지 않고 꼭 들러야 하는 곳이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 훈훈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창작동화집을 많이 사줍니다.” 창작동화책 외에 아이가 선호하는 것은 만화책. 요즘 나오는 책들은 신화에서 과학까지 모든 것이 만화로 꾸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 읽는 아이의 흥미를 줄이지 않기 위해 만화라도 교육적 가치가 있다면 구입하는 편이다. 책의 판형이 점점 커지고 디자인과 지질도 점점 나아진다고 말하는 그녀. 하지만 몇몇 인기 있는 책에만 너도나도 몰려가는 현실이 씩 보기 좋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

취재 장진원(자유기고가)·사진 박신우